축구하다 농구하기

(요6:1~13)

1.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2.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러라
3.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4.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5.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6. 이렇게 말씀하심은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7.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이백 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8.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9.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10.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시니 그 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오천 명쯤 되더라
11.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 나눠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12.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13. 이에 거두니 보리떡 다섯 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열두 바구니에 찼더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축구하다 농구하기>라는 제목의 하나님말씀 증거 합니다.

'축구하다 농구하기'가 대체 무슨 말이냐?
중고등학교 시절 제가 스포츠경기를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보는 것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야구도 열심히 했고 그래서 중학교 때는 우리 반 야구대표 팀이었습니다.
third 와 second baseman 사이에 숏이라고 부르던 위치에 좀 통통한 편이었지만 몸이 빨라서 제 포지션으로 차지하곤 했었고, 보기와는 다르게 타율도 아주 좋았습니다.
그렇게 아홉 명씩으로 이루어진 야구게임을 정식으로 하고 나면 많은 친구들이 갑니다.
그런데 그중에 미련이 남아서 학교운동장을 떠나지 못하면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 친구들이 모아져서 서너 명씩 편을 먹고 축구를 합니다.
그때 축구는 약식이지요, 책가방으로 골대를 만들어놓고 그 먼지 속에서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땀을 뻘뻘 흘리며 축구를 합니다.
그렇게 축구 경기가 끝나면 대부분 친구들이 집으로 갑니다.
단짝 친구와 둘이 남게 되면 이제는 농구를 합니다.
깜깜해지도록 운동장 가로등 빛에 희미하게 보이는 농구골대 하나를 가지고 둘이서 농구를 하다가 집에 가곤 했습니다.

이렇게 축구를 하다 농구를 하게 되는 경우, 야구하다가 축구를 하게 될 경우, 종목이 바뀌면 룰이 완전히 바뀝니다.
축구는 손을 대면 안 됩니다, 손을 대면 핸들링으로 파울이 됩니다.
그런데 농구로 바뀌면서 절대 발을 대면 안 됩니다.
축구를 하다가 농구코트에 들어섰다고 해서 농구공을 발로 차서는 안 됩니다.
종목이 바뀌면서 룰이 바뀌고 하는 방식이 바뀌게 됩니다.
이런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예수 믿기 전에는 축구하던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나면 농구하는 것으로 바뀌는 것처럼 완전히 다른 종목의 삶을 산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과 믿은 다음에는 우리가 삶을 산다는 것이 축구하다 농구로 바뀌는 것같이 완전히 룰이 바뀌고 방식이 바뀌어버리는 것이라 이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은 뒤에도 삶의 방식이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은 농구코트에 들어와서 농구공을 발로 뻥뻥 차며 골대에 골을 넣겠다는 것과 마찬가지의 삶이 된다는 겁니다.
아주 우스워진다는 얘기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의 삶으로 접근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인간으로 오셔서 육체를 입고 사시는 동안에 그분은 모든 세상 사람들과는 다르게 유일하게 당신 혼자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아버지와 지금 이 땅에 살고 계시는 이 시간에 라이브로 연결이 돼있었습니다.
자꾸 라이브 연결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모세가 남겨준 율법서를 보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살았지만 그것은 라이브로 하나님과 직접 연결이 된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오셔서 직접 라이브로 연결을 하셔서 사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과 이 땅에서 육체를 입고 하나님아버지와 연결해 사시던 예수님의 자리에 우리가 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예수님의 자리에 서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하나님아버지와 지금 현재 라이브로 연결이 되어서 사는 것이 예수님 믿는 사람의 삶입니다.

이렇게 라이브로 연결이 될 때에 주님께서 사는 삶의 방식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는 것으로 특징 지어져 있었습니다.
왜? 라이브로 연결되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이 주어지고 있고, 하나님이 어떻게 행동하시는가 보이기 때문에, 그것을 듣고 보고 행동해야 될 예수님으로서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는 겁니다.
자,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예수님이 그렇다면 구체적인 삶의 현실에서 어떻게 사셨고,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연결 상태에 들어가지 않은 사람들, 즉 스스로 무엇인가를 하고 있는 사람들의 삶과는 어떻게 비교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이 오늘 오병이어의 기적이야기에서 나오고 있다는 얘깁니다.
다른 공관복음서에도 똑같이 오병이어 기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병이어로 남자만 5천 명을 먹이고 열두 광주리로 나머지를 거두어들입니다.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차이점이 조금씩 있는 중에 가장 두드러진 차이점은, 다른 공관복음서에는 빌립과 예수님과의 대화가 나오지 않습니다, 또한 물론 안드레의 이름도 명시되지 않습니다.
그냥 제자들 중에 누가 '오병이어밖에 없습니다'라고 말하면서 오병이어 기적이 시작되는데, 오늘은 빌립이야기가 나오고 안드레의 이름이 표시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시기 위해 뭐라고 물어보시는가 하면,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에게 먹이겠느냐?' 하십니다.
'어디서 떡을 사서…'
그런데 빌립은 대답하기를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이백 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예수님은 어디서 떡을 사겠느냐고 물으셨는데, 빌립은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이백 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뭘 느끼십니까?
주님은 '어디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디서 떡을 구하겠느냐?
그런데 빌립은 이백 데나리온으로도 부족할 것이라고 비용을 말합니다.
대답이 질문에 정확하게 일치하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의도였다는 거예요.

무엇을 보여주시려고 했던 것일까?
예수님은 인간으로서 하나님과 라이브로 연결이 되어 살고 있는 분이셨고, 빌립은 아직 하나님과 라이브로 연결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이 똑같이 남자만 5천 명, 여자와 어린이까지 다 합해 2만 명도 될 수 있는 그 군중들과 함께 음식을 먹어야 된다는 사실을 놓고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행동하느냐를 보여주고 있는 거라는 얘깁니다.
연결이 된 사람은 어떻게 하고, 연결이 안 된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그러므로 '빌립을 시험코자 하심이라'는 이 얘기는 빌립의 생각을 드러내게 함으로써 하나님과 연결되지 않은 모든 사람이 이 상황을 맞이했다고 한다면 공통적으로 하게 될 생각을 대표적으로 드러내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생각이 하나님과 라이브로 연결된 예수님의 생각과는 얼마나 다른 것인가, 얼마나 다른 종목의 게임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인가를 주님이 보여주시기 위하여 빌립에게 질문을 하신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안드레가 와서 예수님에게 '한 아이가 물고기

두 마리와 보리떡 다섯 개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이렇게 말하는 걸 보고, 주석가들은 안드레가 빌립에 비해서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다고 얘기들을 합니다.
전 그 말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안드레의 말은, 이제 먹을 것이 과제가 된 상태에서 아마 그 앞 어디쯤에 아이가 하나 앉아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서 이 아이는 헬라어 원어로 보면 어린아이를 말하는 게 아니고, 우리식으로 말해 청소년을 말합니다.
17세 때의 요셉을 지칭하던 히브리어를 바로 여기서 나오는 '아이'라는 말로 번역을 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열일곱 살의 청년을 아이라고 말한 겁니다.
아마 청년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하는 얘기를 듣고 제자 중 한 사람인 안드레를 불러서 자기가 갖고 온 오병이어를 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드레가 그랬을 것 같아요, '이게 뭐냐?'
'먹을 것을 얘기하시는 모양인데 이거라도 좀 받아주시지요'
'야, 이걸 갖고 뭐하겠느냐, 너나 먹지!'
'아닙니다, 뭐 어떻게 할지는 모르지만 이거라도 받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안드레가 갖고 와가지고 하는 말이, '주님, 어떤 아이가 우리가 먹을 것 때문에 걱정하는 것을 듣고는 저한테 이걸 넘겨주었는데, 이거 뭐 받기는 받았는데 얼마 되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단순히 보고하는 거예요.
무슨 안드레의 긍정적이 성향을 드러내는 게 아니에요.

핵심은 빌립과의 대화에 있습니다.
자, 주님께서 보여주시려고 하는 차이점이 뭡니까?
남자만 5천 명이 모여 있는 이 상황에서 무엇으로든 끼니를 때워야겠다고 하는 이 생각을 놓고 대처하는 방식이, 하나님과 라이브로 연결된 사람은 비용을 계산하지 않습니다, 5천 명이라는 숫자를 계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연결되어 있던 주님은 마음이 하나님께로 가있었습니다.
하나님께로 가있는 예수님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먼저, '이 빈들에 모여 있는 이 사람들을 먹이자!'라는 말씀을 예수님의 마음속에 넣어주신 겁니다.
일단 하나님의 생각을 들은 예수님은 돈 계산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어떻게 이 사람들을 먹일 것인가 고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방법을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하셨으면 그냥 그 이야기를 그대로 듣고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대로 실행에 옮기면 됩니다.
그러나 똑같은 상황에 하늘과 연결되어 있지 않은 사람일 경우에는 누구나 다 빌립처럼 돈을 계산하게 됩니다.

자, 어디서 구하겠느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빌립에게 그런 것을 기대하셨던 거예요.
'어디'라는 말씀을 하신 것은 하늘과 연결이 되어있어야 된다는 것을 전제하고 물어보신 겁니다.
그런데 빌립은 이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갈릴리 바다 건너편의 이 지역에서 가까운 벳세다 출신입니다.
그러므로 빌립으로서는 어디서 구하느냐 하는 것은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벳세다 마을을 다 알고 있는데 어디서 떡을 파는지도 알고 있고, 그렇지만 문제는 돈입니다.
"주님! '어디서'는 염려하실 필요 없고 문제는 어떻게 이 많은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떡을 구할 경비를 충당하느냐가 문제입니다."라고 빌립은 생각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과 라이브로 연결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의 생각이고, 인류 모두의 보편적인 반응이요 생각입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 우선 경비부터 생각합니다, '돈이 얼마가 들 텐데…'

그런데 하나님과 라이브로 연결된 사람들은 어떻게 사느냐?
이 세상을 떠나는 겁니다.
마치 베토벤 같아요.
베토벤은 스물여덟 살에 청력을 잃어버립니다.
소리를 듣지 못한 채 자기 속에서 소리를 만들어서 바깥의 소리를 내어놓습니다.
바로 베토벤이 사는 방식이 우리가 라이브로 연결된 상태에서 사는 것과 같다는 겁니다.
경비를 늘 계산했어야만 하는 삶에서 축구경기를 하던 사람이 농구경기로 바꾸는 것과 같다는 얘깁니다.
경비를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여러분이 오천 명을 먹여야 되는 일이 생겼다 그러면 경비를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게 되든지 이제부터는 경비를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베토벤처럼 살면 됩니다.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주님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라이브로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다른 아무런 액션도 보탬이 없이 주님 그 상태로 연결이 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죄가 없으시니까.
우리는 죄 때문에 주님이 이루어주신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으면 라이브로 연결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십자가에서 라이브로 연결된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베토벤이 된다는 얘깁니다.
주어져 있는 상황에 대해서 아무 소리도 듣지 못하는 겁니다.
심지어는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겁니다.
십자가에서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앞에 누가 있든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내가 제일 먼저 마음으로 봐야 될 것은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이게 바로 라이브로 연결되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로 연결될 때 지금 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상태로 마음이 하나님께로 먼저 갑니다.
하나님께로 먼저 가서 하나님을 만나 행복하다보면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마치 베토벤이 이 세상 소리는 듣지 못하는데, 음을 기억하고 있는 가운데 자기 속에서 소리를 만들어 바깥으로 내놓는 것처럼, 하나님께로 마음이 간 사람은 하나님께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그 소리대로 말하고 움직입니다.
이게 베토벤의 삶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완전히 축구경기에서 농구경기로 바뀌어버린 겁니다.

우리는 보이고 들리는 상황에 대해서 보고 듣고 반응을 하면서 경비를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을 따라 무엇이 이루어지려고 할 때 우리는 절대 경비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드는 비용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축구경기에서 농구경기로 종목이 바뀐 겁니다.

그래서 오순절 이후 초대교회 교인들이 유무상통을 하게 됩니다.
기가 막힌 이야기에요.
앞으로 자기 여생을 살아갈 비용을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과 라이브로 연결되었습니다.
이제부터 비용이 계산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살아있어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비용의 문제는 하나님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어디 비용뿐이겠습니까?
어떤 일을 행하기 위한 능력이라든지 자질이라든지 학력이라든지, 인맥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께로 연결되어 있는 내 마음속에 무엇인가를 하겠다고 생각하실 때, 그 하시겠다는 일을 연결되지 않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면 '아, 경비가 얼마가 들겠고, 아 내 학력 갖고는 부족할 텐데, 인맥이 이래가지고 그 일을 할 수 있겠나?' 전부 그렇게 생각할 거라는 거예요, 빌립처럼.

그러나 주님의 십자가에서 마음이 하늘로 연결된 사람, 베토벤처럼 이 세상 소리를 못 듣고 이 세상을 못 보는 사람, 마음이 오직 십자가만 보고 있고 하나님과만 만난 이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겠다고 결정을 내리셨을 때 그 일에 대해서 경비와 비용을 생각하거나 나의 자질과 능력, 인맥을 생각하는 그런 축구경기를 계속하는 삶의 방식은 없다는 겁니다.
완전히 다른 종목을 사는 겁니다.
하늘이 열려있는 상태에서 이 땅의 삶을 산다는 것은 축구경기를 하다 농구경기를 하는 것과 같은 것이고, 베토벤이 살아가는 방식이라 이겁니다.
세상 소리를 못 듣고 내 속에서 소리를 끄집어내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세상 것을 안 보고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사건을 끄집어내 보여주는 것이고, 세상 소리를 안 듣고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소리를 듣고 세상에 소리를 내는 베토벤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려고하든 돈부터 생각하시지요?
예를 들어, '차를 한 대 사야 되겠다!' 마음이 하나님께 가있는 상태에서 내 마음에 들려진 것이라면 비용을 생각할 것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떠어떠한 차를 사야 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차가 굉장히 비싼 차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거라면 비용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나는 그 차를 타고 다니게 될 것입니다.
사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음성이 있다면 그대로 될 것입니다.
비용을 생각할 것 없습니다.
비용이 필요하다면 오병이어가 충당되는 것처럼 어떤 식으로든지 충당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차를 사고 똑같은 사업에 대한 계획인데, 연결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다른 사람이 차타는 것을 보고 '나도 저 차를 탔으면 좋겠다', 다른 사람이 사업하는 것을 보고 '나도 이렇게 사업이 발전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면 제일 먼저 비용부터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돈을 벌어야 저 차를 사지? 내년쯤에 사게 될까?
이건 지금 여전히 축구경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종목이 바뀌었는데도 농구코트에 들어와서 발로 농구공을 차면서 농구골대에 공을 집어넣겠다고 하는 것과 같다 이겁니다.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종목이 완전히 다른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달라진 삶의 종목을 행하는 방식은 베토벤 방식입니다.
세상 소리를 듣지 않습니다, 세상 것을 보고 세상에 대한 느낌대로 반응하지 않습니다.
십자가에서 세상에 대해 죽습니다.
베토벤이 못 듣는 것처럼 죽습니다.
그리고 마음은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십자가에서 세상에 대해 죽으면서 기다리면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행복하십니까?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습니까?
이것이 증거예요, 이때부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하나님의 행동이 보입니다.
이대로 할 때 비용 생각할 것 없습니다.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빌립을 시험코자 함이라'
빌립을 통하여 라이브로 연결되지 않은 사람의 삶을 대하는 방식을 드러내시고, 당신 자신이 몸소 연결된 사람이 삶을 사는 방식을 보여주시면서 두 삶의 종목을 대별해 주시면서 '나를 믿은 다음부터는 완전히 다른 종목의 게임으로 이 세상의 삶을 살되, 베토벤 방식으로 살아

라!’ 가르쳐주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주님의 십자가에서 청력을 잃은 베토벤, 시력을 잃은 베토벤, 세상에 대한 모든 느낌을 잃어버린 베토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라이브로 연결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씀만 듣고,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만 보며 그대로 따라하는, 완전히 다른 종목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